민족문화연구 “조선 후기 개인 담론과 자술 문학” 특집의 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동아시아 문명과 한국’ 기획팀은 근대 이전 개인의 자아의 발견, 혹은 개인성의 발견을 되돌아보는 방안의 하나로 동아시아 전통 산문 가운데 자전・자서・자찬 묘지명 등 ‘자기’ 자신에 대해 서술한 글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민족문학사연구소’와 공동으로 ‘동아시아 자기서사 속 개인과 자아’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그 성과의 일부를 본 학술지에 수록한 바 있다. 이번 호에는 2018년 12월 ‘조선 후기 개인 담론과 자술 문학’이라는 주제로 ‘근역한문학회’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의 일부를 심사를 거쳐 수록한다.

김경은 李德懋와 兪漢雋의 자전을 중심으로 18세기 自傳에서의 他者化 현상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自傳에는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서술하는 托傳의 형식과 가상 인물을 등장시켜 문답식으로 자신에 대해 서술하는 設論의 형식이 있다. 李德懋의 「看書痴傳」은 托傳의 형식을 계승하면서 ‘자기타자화’ 전략을 통해 객체인 ‘간서치’를 등장시켜 책 읽는 자아로서의 자신을 형상화했고, 兪漢雋의 「自傳」은 設論의 전통을 계승해 문답식의 대화를 통해 글 쓰는 자아로서의 고민과 자기 위안을 드러내면서 저술가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타자화하는 자전의 전통적 방식을 계승・활용하면서도, 독서와 문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기존과 다른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형식적 측면에서는 전형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보편적 규범과 인식으로부터 일탈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하지영은 申維翰의 작품 중 자신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시와 편지글, 자서 등을 포괄적으로 살피면서, 신유한의 자술 문학에 나타난 자아 정체성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신유한의 자술시에는 “객”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기대와 좌절 속에서 안과 밖 그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길 위에 서 있는 신유한 자신의 초상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신유한은 “龍門”, “景雲” 등으로 자신을 새로이 명명하면서 司馬遷과 崔致遠의 삶과 문학에 근거해 흔들리는 자신의

내면을 추스르면서 자신의 삶과 문학적 지향을 확인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다. “용문”, “경운”이라는 명명은 “객”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주체로서 자신을 정립시키려는 신유한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박동욱은 이언진의 「호동거실」 연작시를 통해 18세기 한 역관의 반역적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저자가 보여주는 이언진의 반역은 정치적 혁명이나 대사회적인 변혁이 아니라 先覺한 자가 느끼는 세계에 대한 불만과 비극적인 절망, 그리고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자화상을 그리며 새로운 인간상을 창조하는 방식의 개인적 구원이다. 이언진은 「호동거실」에서 張獸醫와 張姓翁, 수호전의 인물상, 고대의 협객 등을 결합하여 기존의 유가 질서 속에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진솔한 인간애를 보여주는 새로운 인간상을 창조했다. 비록 대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그의 고민은 확대되지 않았지만, 「호동거실」에 보이는 반권위적 의식, 체재 비판,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난 새로운 자아의 창조 등을 통해 볼 때, 이언진은 또 다른 의미에서 늘 반역을 꿈꾸던 개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기완은 초상 자찬에 나타나는 ‘자기 타자화’의 양상과 초상화찬 전반에 쓰이는 관용구의 의미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초상으로 그려진 자신을 타인처럼 간주하는 ‘자기 타자화’의 수사는 초상 자찬 특유의 서술규약으로서 서술 주체(자찬의 작가)가 초상을 향해 일방적으로 질문을 던지거나 자문자답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개된다. 특히 자문자답하는 형식은 자기정체성을 탐색하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과 긴밀하게 맞물려서 진행되고, 이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자문하는 자기탐색의 여로에 다름아니다. 저자는 또한 초상자찬에 자주 쓰이는 관용구인 “望之”와 “卽之”, “若有思”의 의미를 각 작품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면서, 이들 관용구가 초상으로 그려진 개인과 자아의 형상화 및 인물의 내면 독해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밝히고 있다.

‘조선 후기 개인 담론과 자술 문학’을 주제로 한 이번 기획특집에는 자전과 화상자찬에 보이는 자기 타자화 현상에 대한 탐구와 자술시, 연작시 등을 통해 개인과 자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논문들이 실렸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성과들이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되었는데, 지면의 제약상 본 학술지에 실리지 못한 원고들은 공동주최기관의 학술지인 『한문학논집』에 게재될 예정이다.